

고인돌 유적, 미디어아트를 만나다

고창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개막 다음달 14일까지 '별빛기행' 고인돌 유적지서 라이팅쇼 등

국내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인 고창의 고인돌 유적과 디지털 체험콘텐츠가 결합한 '2023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고창군은 고인돌박물관과 고인돌유적지에서 문화재청과 전북도, 한국문화재단이 주최한 미디어아트 '별빛기행' 개막해 오는 10월14일까지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별빛기행'이 열리는 순간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삼천년의 시간여행 '별빛기행'을 주제로 펼쳐진 개막식은 심덕섭 군수와 이경신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인 미디어아트쇼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찬 고인돌 공원에, 꽃이 만개한 순화의 정원이 생겨난다'를 주제로 웅장한 음악과 매편영상, 조명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라이팅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15일 고창 고인돌유적지에서 펼쳐진 고인돌유적과 디지털 체험콘텐츠 결합 '2023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개막식. 심덕섭(왼쪽 다섯번째)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고창군 제공>

70명의 팝페라 공연단과 합창단이 출연해 고창의 문화와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비롯해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공연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아쉬운 것은 공교롭게 행사가 예정됐던 이날 비가 오는 관계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드론쇼'가 펼쳐지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중에도 1500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화려한 개막식 공연과 빛이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을 즐기며 주최측의 기대에 부응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인돌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쇼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현대 첨단기술이 더해진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상습 침수' 남원 노암4통지구 재해 예방

위험 개선사업 공모 선정...2026년까지 국비 150억 확보

남원의 우기철 상습침수지역인 노암4통지구에 재해예방을 위한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노암4통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암4통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노암4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대표적인 침수발생 지역이다.

시는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고 지하우수조 우수관거 등을 정비한다.

시는 이를 통해 해당 48세대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물론 시가지와 농경지 보호로 자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예방사업 관련 예산확보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시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개소(대강 사석, 주생 재천), 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노암동, 대산 풍촌, 수지 산정) 등 5개 지구사업에 국비 629억원을 포함 총 125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노암4통지구 정비사업을 계획한 안전재난과의 선제적인 타당성조사와 함께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예산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출신 독립운동가를 찾습니다

서훈신청 독려...연말까지 군민 신청 기간 운영

고창군이 지역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서훈신청을 독려하고자 연말까지 군민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출신으로 현재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01명이다.

하지만 군은 '함말전북의병사' 등 관련 자료상 아직까지도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출신 독립운동가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들의 서훈신청을 독려하고자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과 역사문화연구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꾸렸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군민 신청기간 운영과 자체 기본조사를 거친 후 내년에는 연구용역 등을 추진,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공훈 발굴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군민 신청기간을 군정 소식지와 이장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독립운동가 후손 상담과 제보를 비롯해 궁금한 내용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 '의향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기차 타고 정읍 구절초축제 즐기고 농촌 체험



구절초 꽃축제가 열리는 산외면 구절초 지방정원.

다음달 5일까지 '농투레일' 신청 접수...체험·여행 코스 등 풍성

정읍시가 구절초꽃축제 기간에 맞춰 농촌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 '농투레일'을 운영한다.

농투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논두렁, 두레, 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청은 '렛츠코레일' 사이트에서 10월5일까지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9만2000원(왕복 기차표, 중식 포함)이다.

올해 농투레일 행사는 농촌체험농장 '알로에 사랑'에서 알로에 보습제 만들기 체험과 구절초꽃축제 관람, 정읍9경 중 하나인 쌍화차 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코스를 구성했다. 보습

제만들기 체험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 구절초 꽃축제는 10월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산외면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개최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철도 접근성이 좋은 정읍의 이점을 활용해 구절초 꽃축제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방문해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20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9세 미만 어린이부터...75세 이상은 다음달 11일 시작

정읍시는 오는 20일부터 어린이들을 시작으로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분산해 접종시작 시기를 달리한 시는 우선 20일부터는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처음 접종 대상자)를, 10월5일부터는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에 대해 접종에 나선다.

75세 이상 노인층은 10월11일부터 접종하고 70세-74세는 10월16일부터, 65세-69세는 10월19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10월30일부터 백신 소진 때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11월6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해 모든 시민을 대

상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별로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되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임신부는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꼭 예방접종을 받아달라"며 "지역사회 독감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